

## ‘킹 목사의 꿈은 오늘날 내게도 남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기념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전히 마틴 루터 킹 블러버드 인근 주민들은 실업률, 건강보험,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킹 목사가 꿈이 우리 마음에 아직도 살아서 항상 희망을 불붙게 하기 때문입니다.” 흑인 해방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Martin Luther King, Jr)를 기념하는 행사가 1월 17일 LA 각 지역에서 펼쳐졌다. 한인타운 인근, 마틴 루터 킹 블러버드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Blvd)와 웨스턴 애브뉴(Western Ave)크렌셔 블러버드(Crenshaw Blvd)에서 열린 퍼레이드에는 약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킹 목사 기념일을 축하했다. 퍼레이드에는 LAPD,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 퍼레이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 장, 주요 정치인사들이 다수 참

여했으며, 지난 14일 LA에 도착 한 아이티 할렐루야합창단 단원

들과 각 지역 중고등학교의 마칭 밴드가 다수 출연해 시민들은 해

피 킹 데이(Happy King Day)를 연이어 외쳤다. 또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 LA 미주한인재단 회장 박상원 회장, 한국 전통무용팀이 퍼레이드에 참여해 킹 목사 기념일을 축하했다. 김영진 의원은 “인종 갈등 해방에 앞장선 킹 목사 기념 퍼레이드에 참여하게 돼 참으로 감격스럽다”며 “10년째 퍼레이드에 참여하는데 올해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국 역사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은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 일일 것”이라며, “한인들 중에도 신앙으로 훈련된 기독 정치인이 꿈과 믿음을 가진다면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미래에 곧 오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지재일 기자)

### 기독일보 창간 7주년 감사예배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일보가 창간 7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JJ그랜드호텔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민중기 목사(남가주교협 회장)가 설교했으며,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영교회)와 강신권 목사(비전153세계선교회 총재)가 축사를, 박용덕 목사(오렌지카운티교회 회장)와 표세홍 목사(LA교역자협의회 회장)가 권면,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가 축도했다.

이밖에도 교계 인사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7면에 계속

## “이민사회와 교계 위해 두루 사랑 실천하겠다”

“민중기 목사는 섬김의 리더십과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진 분입니다. 올 한해 남가주 교협이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박용덕 목사. 제41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 교협)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지난 16일 총현선교회에서 드렸다. 40대 남가주 교협을 이끌었던 지용덕 목사가 위임을 하고, 민중기 목사가 41대 회장으로 취임해 모든 이들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이 교

체됐다. 지용덕 목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종이 쓰임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며 “LA 한인교계와 총연사, 한인회, 동포재단 등 한인단체들과 협력하여 여러 사업들이 진행돼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 목사는 “앞으로 교협이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고 이임인사를 전했다. 민중기 목사는 “이민사회 꾸준한 성장 속에서 남가주 교회도 약1,350개로 늘어나 41대 회장으로

로서 중차대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남가주 교협이 이민사회와 교계를 두루 사랑하며 섬겨 더욱 변화되고 발전되도록 힘쓰겠다”고 취임인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를 위한 사회는 변영익 목사(남가주 교협 수석부회장)가 진행했으



남가주 교협 이임회장 지용덕 목사가 신임회장 민중기 목사에게 교협기를 이양했다.

며, 성경봉독 김영대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 설교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특별한 금기도 손수웅 장로(남가주 교협 이사장), 특별헌금소프라도 황해경 교수, 교협기 이양식, 신임회장단 이사장단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송정명 목사는 ‘전심전력하라(디모데전서 4:15)’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송 목사는 “교협이 앞으로 △작은교회 섬김, △다민족 커뮤니티와 유대적인 관계 형성, △교협 위상 증진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전심전력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남가주에 미주 가장 많은 이민교회가 있지만 80%가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송정명 목사는 “교협이 작은교회 목회자들과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이뤄가라”고 전했다. 또한 송 목사는 “영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미국의 변화를 위해 타 커뮤니티와 손잡고 유대관계를 깊이 형성해 동성애, 반기독교 사상으로 망든 미국을 위해 함께 기

도하고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라”고 권면했다.

남가주 교협은 앞으로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광복절 66주년 기념 연합 감사예배/인창호 선생 기념사업, 이민신학 심포지움, 남가주 교협 41주년 기념 성회, 작은교회를 위한 특별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흥집회나 세미나를 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가 교협으로 요청해 감사 설교를 요청하여 무료로 설교하는 서로 나눔 운동을 진행한다. 또한 각 교회에서 쓰지 않는 가구나 교회 용품들을 교협과 연결해 작은 교회에 나누어 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문의) 사무국장 양경선 목사 323-735-3000 (지재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특별협찬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나항공  
**역시, 효자다!**  
서울아산병원의 건강검진이 역시 효자노릇을 했습니다.  
30년 이민생활에 자식 키우느라 이제껏 여행한 번 못가보신 우리 부모님. 지금도 우리를 뒷바라지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한국내 최고 아산병원과 미국내 1등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이제껏 한 번 못다한 효자노릇 하겠습니까.  
〈특별가: 1월1일 ~ 4월3일〉

**공간의 품격이 다릅니다.**

- 환경이 최상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건물로 국내 최대규모
- 한결같이 내리내리는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
- 고객을 세심히 배려한 넓은 전용검사 공간
- 보호자들을 위한 여유있는 대기공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합니다.**

- 다양한 전문분야의 최고 실력을 갖춘 45명의 전문의 상주
- 암 및 질병 발견시 전담 코디네이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연계 시스템, 헬스 코디네이터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의료시스템 구축

대표전화 (213)388-4000 / 388-0099 • 1-800-933-3011 • 서울 02-522-8686  
◆아주항공부: 213-388-9404 ◆동부(로렌하이츠, 리버사이드): (800) 956-3939 ◆토렌스(310) 217-0770 ◆샌디에고(800) 994-1233 ◆북경: 8610-6439-2397 ◆833 S.Western Ave #35-A Los Angeles CA 90005

**“기독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GENERAL SCREENING PROGRAM(A)**  
위내시경과 복부초음파를 포함한 각종 성인병 관련 검사항목이 포함된 성인병 프로그램

**남성** 문진상담, 혈압측정, 신체계측(신장, 표준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소변, 대변(질액, 기생충, 흰색), 안과(시력, 안압, 안저), 청력, 폐기능, 심전도, 흉부X선(정면), 식생활평가, 혈액검사(알부민, 빌립, 혈액응고,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능, 고지혈증, 당뇨, 인슐린, 콜레스테롤, ABC혈관검, 맥박, 세지, 혈리코타이탄(혈액), 동맥표지자(간경, 폐암, 소화기암, 전립선암), 복부초음파, 위·식도경

**여성** 문진상담, 혈압측정, 신체계측(신장, 표준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소변, 대변(질액, 기생충, 흰색), 안과(시력, 안압, 안저), 청력, 폐기능, 심전도, 흉부X선(정면), 식생활평가, 혈액검사(알부민, 빌립, 혈액응고,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능, 고지혈증, 당뇨, 인슐린, 콜레스테롤, ABC혈관검, 맥박, 세지, 혈리코타이탄(혈액), 동맥표지자(간경, 폐암, 소화기암, 전립선암), 복부초음파, 위·식도경, 맥박표지자(간경, 폐암, 소화기암, 전립선암), 복부초음파, 위·식도경

남 \$1,699 여 \$1,799 (항공료포함)

**내용에 꼭 맞는 명품 TAILORED PROGRAM(B)**  
개인별 가족력, 경력, 성별, 연령, 생활습관등 건강을 고려하여 개인 요구도에 맞게 맞춤설계하는 프로그램  
GENERAL SCREENING PROGRAM + 영양상담, 심장운동부하, 심장초음파 또는 경동맥초음파 중 택1  
남 \$2,299 여 \$2,299 (항공료포함)

**가치있는 선택 EXTENDED CANCER SCREENING PROGRAM(C)**  
발병가능성이 높은 주요장기별 암관련 조기진단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밀 프로그램  
GENERAL SCREENING PROGRAM + 심장운동부하, 심장초음파 또는 경동맥초음파 중 택1, 갑상선초음파, 흉부CT, 복부촬영CT, 골밀도, T-L Spine X선촬영, 의식하진전대장내시경  
(항공료포함) 남 \$3,099 여 \$3,299

**최고의 삶을 위한 최상의 선택 PREMIUM SCREENING PROGRAM(D)**  
정밀형 암검사와 협진중 고혈압등 심장질환의 이상여부와 뇌질환 검사 모두 포함된 Total Care 프로그램  
GENERAL SCREENING PROGRAM + 영양상담,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장운동부하, 관상동맥CT, 복부촬영CT, 흉부CT, 의식하진전대장내시경, 뇌MRI & MRA, 골밀도, T-L Spine X선촬영  
남 \$4,399 여 \$4,699 (항공료포함)

건강검진비+항공료+Tax 포함 ※서울아산병원 전문의로진인 아주관광에 상주하기에 가능한 서비스 - 개인별 맞춤검진 설계, 결과상담, 지속적 스케줄링 서비스 제공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아주관광입니다!  
www.usajutour.com  
**이주관광**  
101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서울아산병원**  
아산병원 LA센터: 1-800-933-3011



▶ 오렌지카운티교협 회장 박용덕 목사 취임예배 및 신년하례회

# 박용덕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 회(이하 오렌지카운티교협) 회장·이사장 취임예배 및 신년하례회가 1월 13일(목) 삼성장로교회(담임 신원규)에서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오렌지카운티교협을 맡게 된 회장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한 가지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연임하게 해 준 이사회,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는 오렌지카운티지역 목사님들이 대단하다”고 취임사를 대신했다.

아울러 함께 이사장에 취임한 신원규 목사는 “오렌지카운티교협 역사상 처음 있는 이사장 취임임이라 송구하다”며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와 그 진리의 빛을 발하라고 세워진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교협을 협력하고 지원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임원들 인사 시간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힘찬 각오를 다졌다. ©지재일 기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예배에는 오렌지카운티 지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이하 남가주교협 회장 민중기 목사), 남가주 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

다. 이들 단체는 서로 긴밀한 공조와 협력으로 지역교회들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남가주교협 회장 민중기 목사(중현선교회)는 “오렌지카운티 목회자들이 맑은 샘물의 근원이 되어 지역과 사회에 흘러 보낸다면,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극복

할 수 있고 나아가 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협을 통해 오렌지카운티와 남가주, 미 전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되어 가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박효우 목사(풍성한교회)는 “오렌지카운티 지역 400여 교회를 이끌

어가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잘 할 것”이라며 “교계와 아울러 한인커뮤니티 전체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또한 지난해 남가주교협 회장으로 수고한 지용덕 목사(미중앙교회)는 “피로를 풀어주는 오렌

지처럼 주님의 피로를 풀어주고 이민자들의 피로도 풀어주어 회복시키는 오렌지카운티교협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교협 취임예배에서는 한기홍 목사(증경회장, 은혜한인교회)가 설교했으며 한목사는 “오렌지카운티교협이 지역 한인교회들의 신앙계승과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꿈꾸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바란다”며 “이같은 사역의 중심에서 신앙을 맞이하는 신부의 사명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오렌지카운티교협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박용덕 목사 외에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된 목사(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총무 백낙균 목사(기독교방송문화원 대표), 서기 이득환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회계 박한규 장로(남가주빛내리교회) 등이 2011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의와 지역 교회들을 섬긴다.

〈박상미 기자〉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LA ORT 대학에서**

저소득층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자격자 한인 가정에게 ESL과정, 학비 전액 보조 및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교수업 일한 직업 추천

1. 비즈니스... (아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2. 건강과 메디칼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보조직, 의사 보조직)  
3. 가승직 (컴퓨터 그래픽과 데스크탑 출판)  
4. ESL (기초, 중급, 상급반으로 나누어서 각 4-6등급의 반이 구성됨)  
5. 유학생 1-20명씩, 소셜 번호, 워킹퍼밋 도와드립니다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상담필수예약〉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유자격자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 남가주한인장로협 '존경받는 장로가 되자'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장 하기언 장로) 36대 회장 취임감사예배 및 신년하례회가 16일(주일) 오후 나성성결교회(담임 정호운 목사)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회장을 맡았던 하기언 장로(나성성결교회)가 공천위원회로부터 다시 천거를 받아, 2011년 남가주한인장로협의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하기언 장로는 취임사에서 “열심히 했지만 능력이 부족한 것을



2011년 남가주한인장로협의 임원들. ©박상미 기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연임을 정중히 사양했지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 장로는 “의료선교와 사랑나눔전달 등 예수사랑 전하기에 더욱 힘쓰겠다”며 “특히 한국장로회총연합회 공동으로 주님 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취임식에는 특별히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홍경중 장로가 참석해 축사했다. 홍 장로는 “한국의 23만여 명의 장로들을 대표해 축하를 전한다”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최우선으로 살며 책임을 다하는 남가주

장로협 회장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예배에서 설교한 정호운 목사는(본문 뱀전5:1~6) “장로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다. 이 귀한 직분일수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해야 한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김으로써 양 무리의 분이 되어 존경받는 장로들이 되라”고 전했다.

제36대 남가주한인장로협 임원은 회장 하기언 장로를 비롯해, 부회장 백문철 장로, 이창건 장로, 한철수 장로, 안철 장로 등이며, 총무 정도영 장로, 서기 김형근 장로, 회계 유문근 장로 등이다.

〈박상미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일 광고국장 : 이안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형소 허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별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시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이력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고객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늘 고민합니다. 고객들의 참된 동반자로, 때로는 강직한 대변인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민법 상법/소송 파산법**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비자거절·항소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상법(계약재결·위반)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신용 문제 상담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대표변호사 이문규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전문 변호사 Ohio & Missouri 연방 사법관(1990년) Univ. of Missouri 상법 및 회계사(1992년) 샌디에고 시 세법전문사 겸회계사 변호사 및 세무사(1995년) 변호사 미국이민법 전문사(1995년) 변호사 미주지역 공인회계사(1996년) 변호사 Board of Certified Financial Planners (1997년) 대표 상법 전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Enbridge, Brierley, Kinross & Lee, Inc. 변호사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전문 변호사

**이문규 법률그룹 LAW FIRM**  
대표전화 213-380-2828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르길타워 1904호  
822-510-5200



# 나눔과기쁨 미주본부 창립 '새로운 출발'

미국 상황에 맞는 나눔과기쁨의 새로운 모델작업이 시작된다. 지난 17일(주일) 나눔과기쁨 미주본부(본부장 강신권 목사)는 미주 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창립 발대식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나눔과기쁨 미주본부 창립 발기인대회 ©박상미 기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나눔과기쁨 모델을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전부터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한국인이 살고 있어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와 환경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해 창립된 뉴욕본부(2010년 11월)에 이어 17일 창립된 LA 미주본부 창립은 미국 상황에 맞는 나눔과기쁨 모델을 정립해 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인다. 새로운 모델이 정립될 때, 미국 외 다른나라의 나눔과기쁨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주본부 창립 발대식에 참석한 서경석 목사는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눔과기쁨을 창립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는다"며 "그러나 미국상황에 맞는 모델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른 도시로 파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경석 목사는 "LA 미주본부와 뉴욕의 창립은 한국과 다른 나눔과기쁨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했다. 나눔과기쁨 미주본부장 강신권 목사는 "LA에는 180여 소수민족이 사는



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창립 발대식에서 축사한 조명환 목사(세계기독교연맹회 회장)는 "민 주화를 외치던 사람들 모두가 권 력에 줄을 섰지만 그렇게 하지 않 은 유일한 민주투사가 서경석 목

와 2부 창립 및 발대식, 3부 서경석 목사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1부 창립감사예배에서 설교(본문 록 10:29~37)한 민중기 목사(남가주교회 회장)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하기보다 우리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우리의 이웃이 무차별적이며 모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목사는 "우리가 하려는 선한 일이 또 다른 행정적인 일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이웃과의 관계회복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행 위보다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진정한 기쁨이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눔과기쁨 미주본부장은 강신권 목사이며, 공동대표로 간수웅 목사, 강동희 장로, 김영규 회장, 김원락 목사, 김창호 목사, 모종태 장로, 민중기 목사, 박상원 장로, 박용덕 목사, 박효우 목사, 손수웅 장로, 손태정 목사, 양기호 목사, 이문규 변호사, 정해진 목사, 조선훈 회장, 지용덕 목사, 최 철 장로, 하기연 회장, 한기원 목사, 황선철 회장(가나다 순) 등이다.

〈박상미 기자〉

## 창립 발대식 개최, 서경석 목사 "新패러다임 제시할 터"

다민족 사회로 이 중에서 10만여 명에 달하는 홀리스들이 있다"며 "나눔과기쁨은 소외된 이웃이 없는 다민족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예수님처럼 살아보자는 모토로 교회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라며 "지금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서경석 목사님과 그로부터 시작된 나눔과기쁨은 미국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개최된 나눔과기쁨 미주본부 창립 발대식은 1부 감사예배

## 나성한인교회 3대 담임 김성민 목사 취임

나성한인교회가 1월 16일(주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16일 제3대 담임목사 취임 및 직분자 임직식을 거행함으로써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새로 취임한 3대 담임 김성민 목사는 영성훈련, 제자훈련, 전도 등의 핵심 가치로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바 있다.

이날 김성민 목사는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서 세 가지 물건을 꺼내 보이며



나성한인교회 3대 담임 김성민 목사가 취임식에서 서약하고 있다. ©박상미 기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각오를 다졌다. 먼저 수건을 보이며 김성민 목사는 "농부같이 땀 흘리며 성실히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모자를 꺼내 보이며 "정해진 틀대로 경기는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사역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망원경을 들어 보인 김성민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영적인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겠다"고 말했다.

나성한인교회 성도들은 새 담임목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만큼 큰 박수로 화답했으며,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기를 기도했다. 지난 6월 나성한인교회를 사임한 후 워싱턴에 살고 있는 2대 담임 김영진 목사는 이날 "청빙의 모든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

기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더욱 깊이 알기까지 인내로 기다리라"고 권면했다.

특히 김성민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전에 목회하던 오레곤 벨엘장로교회의 시무장로는 "김성민 목사님으로 인해 벨엘장로교회가 서북미 지역에서 건강하고 성숙한교회가 되었다"며 "이 같은 김 목사님의 믿음과 열정은 나성한인교회도 크게 성장시킬 것을 믿는다"고 축하했다.

나성한인교회 3대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철길 장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김 목사님은 1.5세로 영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하시고 매우 열정적이며 믿음이 큰 분으로, 모든 교우들과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민 목사의 취임에 이어 증경장로 추대(김영일, 이철길), 장로 임직식(정상엽), 안수집사 임직식(김정인, 배성준, 임진철, 최경철), 권사 임직식(유준자, 전태일, 한숙현)이 차례로 진행됐다. 김성민 목사는 제 3대 담임목사로서 16일 공식적인 첫 주일예배 설교를 했으며, 이날 임직식을 인도했다.

나성한인교회는 지난해 6월 2대 담임목사가 사임한 후 3대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해 왔다. 김성민 목사가 결정, 취임하기 전 6개월여는 나성한인교회 원로 박희민 목사가 임시당회장을 맡았다.

김성민 목사는 오레곤(Oregon)에 있는 벨엘장로교회에서 12년간 목회했으며, 이 기간 벨엘장로교회는 70여명에 불과하던 성도에서 700여명으로 늘어난 성장을 경험했다. 〈박상미 기자〉



풀러신학교 한인 동문들이 모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풀러 한인 동문회 가족 신년모임

풀러신학교 한인 총동문회 가족 신년모임이 지난 16일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에서 열렸다. 풀러 한인총동문

회(회장 박진구 목사)가 주최하고, 풀러 한인 M.Div 동문회(회장 박동건 목사)가 주관한 이번 모임은 식사교제, 예배, 전교 시

간으로 진행됐으며, 최경욱 목사가 환영사와 양택호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지재일 기자〉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C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사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풀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동부사인&트로피**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일보 창사 7주년을 축하합니다.**

**제20대 회장 박용덕 목사**      **제20대 이사장 신원규 목사**

**제20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 및 임원명단**

<b>이 사 회</b> 이 사 장 신원규목사(삼성장로교회)      총무 이사 윤성원목사 이 사 정영수목사 한기홍목사 박학선목사 이종은목사 양문국목사 양금호목사	<b>분과위원장</b> 예 배: 윤성원목사(오렌지한민교회) 신 학: 오아론목사(그레이스신학대학원) 이 민목회: 오상철목사(이민신학 연구소장) 영 성: 이호우목사(좋은소식교회) 장 학: 김도영장로(O.C 영락교회) 기 획: 박찬근목사(은혜침례교회) 교 육: 민승기목사(갈보리새생명교회) 선 교: 김기동목사(충만교회) 전 도: 주혁로목사(주님의빛교회) 언 론: 이정현목사(오렌지새영교회) 언 음: 박상원목사(반석감리교회) 방 송: 송규식목사(그레이스웨이크교회) 송: 유우경집사(미주복음방송아나운서)	복 지: 노경도목사(남가주나눔의교회) 권 교: 광경동목사(New Loving Church) 친 신 도: 서양훈장로(은혜한인교회) 여 성: 웬디 유(O.C평동위원, OC건강정보교육센터소장) 구 제: 최정자목사(그레이스웨이크교회) 차세대선교: Robert천목사(은혜한인교회) 청년 선교: 더글라스 김(HYM 대표) 실버 사역: 주도진목사(부모님 선교회 대표) 대외 협력: 서문준집사(남가주사랑의방일 원장) 의료 선교: 윤재필집사(자생당 원장) 역사 편찬: 배낙균목사(기독교방송문화원 대표)
---	---	---

**총 무** 배낙균목사(기독교방송문화원 대표)  
**협동총무** 박용덕목사(반나교회) / 심상은목사(갈보리새생명교회) / 이윤수목사(한국인선교회)  
**서 기** 이득환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부 서 기 이준덕목사(O.C. 제일장로교회)  
**회 계** 박한규장로(남가주빛내리교회)      부 회 계 이지수장로(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감 사** 정호영장로(은혜한인교회) / 김동식장로(남가주빛내리교회)

**특별연주소**  
 차세대연주소: 송규식(그레이스웨이크교회)



# 가정사역 길라잡이 “가정은 선교지!”

이민교회 내에서 가장 소중하고 시급한 목회 현장은 어디일까? 바로 가정이다. 가정사역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의가 개설됐다. 바인선교대학교(총장 박종무 목사)는 가정사역 분야 전문가들로 알려진 크리스티나 강 교수 등을 강사로 초빙, 2월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크리스티나 강 교수는 남편인 피터 강 교수와 함께 풀러선교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가정사역 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정사역을 통한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강 교수는 이민가정 내에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말’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말 하는 방법’이 대부분 문제들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며 “가정사역의 성서적 기초, 결혼예비 상담, 이민 가정사역 개론 등의 수업을 통해 먼저는 배우는 자신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정사역은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전했다.

결혼한지 30년이 된 강 교수 부부도 ‘서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에서 가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배워보니 정말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사

역은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크리스티나 강 교수는 “남자와 여자는 문화가 다른 각각의 선교지”라며 “이런 점에서 가정사역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중요한 선교적 접근 방식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가정사역에 대한 공부와 지혜를 나눔으로써 내 가정부터 우리교회, 우리사회, 우리나라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주기 원한다”며 “결국 이민사회의 틀



바인선교대학교 가정사역 강의를 맡은 크리스티나 강 교수(위)와 바인선교대학교 총장 박종무 목사(아래)

모델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바인선교대학교의 이민교회를 위한 가정사역 강의는 2월 7일부터

## 바인선교대학교 ‘가정사역 배움의 기회’ 열어

26일까지 3주간 집중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가정사역의 성서적 기초에 대해 이상명 교수(미주장신대), 결혼예비 상담에 대해 피터 강 교수(풀러선교대학원), 이민 가정사역 개론에 대해 크리스티나 강 교수(풀러선교대학원)가 각각 가르치고, 이민교회의 가정사역에 대해 카메론 이 교수(풀러 심리대학원)가 특강한다.

교역자 혹은 평신도 누구나 지

원할 수 있으며 한 과목당 3학점으로 수강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특히 수강자가 바인선교대학교의 M.A과정 편입을 원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바인선교대학교는 제 3세계 교회지도자 양성, 선교사들에게 현지에서 한문연구의 기회 제공, 학문과 훈련을 겸한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별히 공부를 하고 싶으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고 사역지를 비워둘 수 없는 선교사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현지인 사역자들을 바로 그 현장에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일반신학교의 1/4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국교회와 단체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바인선교대학교 총장 박종무 목사는 “17명의 신학, 선교학, 철학 박사 등의 교수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현지에 찾아가서 강의한다”며 “이들은 수준 높고 열정적인 강의로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인선교대학교는 캘리포니아주정부 교육국의 허가를 받아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대학교이며, 신학대학 학사와 음악학사, 교역학 석사, 교육학 석사, 선교학 석사, 선교학 박사, 신학박사 등을 개설하고 있다.

강의 입학원서: [www.vine.ac](http://www.vine.ac)  
 마감: 2011년 2월 4일(금)  
 강의 장소: 659 S. Westmoreland Ave, #A LA, CA90005  
 문의: 310) 991-4733, 310) 212-7481

〈박삼미 기자〉

## 130여명 한인교회 사모들 ‘위로의 밤’ 열려



위로의 밤에서 기도하는 사모들. ©지재일 기자

### “사모, 기도로 어려움 극복하자”

“우리 사모들을 위로해 주는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간증으로 도전받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 사모

“사정이 통하는 사모들이 모이니가 정말 좋네요. 힘이 됩니다. 사모로써 목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공

목회자들의 돕는 배필 사모들을 위한 위로의 밤이 18일(화) 저녁 한인타운의 한 식당(만리장성)에서 개최됐다.

남가주 전역의 사모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사모들만을 위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130여명에 달하는 한인교회 사모들이 모인 이날 행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 사모특별분과 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예배와 만난 및 친교의 시간으로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사모 위로의 밤’ 예배에서 설교(본문 삼삼 1:10~18)한 박효우 목사는 “이민목회 정

말 힘든데, 목회자들의 사모들은 더욱 힘들다”며 “어떻게 하면 사모들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간증이 넘쳐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에 후 2부 순서로 구현화 사모(미주복음방송)의 찬양과 간증이 이어졌으며, 노병천 장로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또한 경품추첨 등 즐거운 만난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삼미 기자〉



아이티 할렐루야 합창단의 찬양.

## 대지진으로 무너진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 아이티 할렐루야합창단 LA 순회 공연

“미국에 처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감사합니다. 지난 해 아이티 지진으로 인해 여전

히 환경이 어렵지만, 항상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티 대지진으로 무너진 절망을 딛고 아이티 할렐루야합창단과 스태프 41명이 LA를 방문했다.

지난 16일 미주성산교회(양동섭 목사)와 이글레시아 센트로 라틴교회를 방문해 은혜로운 성가곡을 연주한 합창단은 지난 17일 마틴 루터 킹 페어리드 참석 후 23일까지 LA에 머물며 순회 찬양을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담임 강진웅 목사)에서 찬양을 드렸다.

이번 아이티 청소년 합창단 방문 및 공연은 LA교역자협의회, 글로벌비전뱅크, 세계문화스포츠포럼,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남가주장로협의회, LA한인회, 동포재단, 마틴루터재단, LA카운티 커미셔너협회가 후원한다.

문의: 213-248-1143  
 〈지재일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usajyk@gmail.com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 남가주한인목회자 신년목회세미나 및 평신도신년축복성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대학교에서는 남가주 교계 단체들과 협력하여 신년목회자세미나와 평신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신년축복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신입생/편입생 수시모집  
 등록마감: 2011년 2월 16일(수)

## 세미나 성회 총주제 : 그리스도를 닮자

**주강사: 김성길 목사 (시은소교회 담임)**  
 강의 주제 <그리스도를 닮자>  
 29일(토) 세미나: ▲10am-12:30pm, ▲2pm-4:30pm  
 27일(목)-29일(토) 평신도 신년축복성회 7:30pm부터

**최홍주 목사 (에브리데이교회 담임)**  
 강의 주제 <교회를 부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눔>  
 27일(목) 세미나: ▲10am-12:30pm, ▲2pm-4:30pm

**Dr. Rudy Cerullo 총장**  
 강의 주제 <Healing of the Soul (Christian Counseling)>  
 28일(금) 세미나: ▲10am-12:30pm, ▲2pm-4:30pm

\* 식사 및 감사 저서, 선물이 제공됩니다.

**주강사 김성길 목사 약력**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66회) 졸업  
 수원노회 노회장 역임  
 예정합동 GMS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역임  
 현, 예정합동총회 신학대학교 재단이사  
 현, 한국기독교성령 100주년대회 대표 대표회장  
 현, 시은소교회 당회장

■ 일 정: 2011년 1월 27일(목) 29일(토)  
 ■ 세 미 나: ▲10am-12:30pm, ▲2pm-4:30pm, ▲축복성회:7:30pm  
 ■ 장 소: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본당(1,000석)  
 1342 W. Adams Bl, Los Angeles, CA 90007-1635

◆ 주최: 리폼드대학교 신학대학원 ◆ 주관: 벨리교역자협의회, LA교역자협의회  
 ◆ 후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연락처: 김원락 목사 (818-337-8280), (858)472-0445  
 E-Mail: spcr113@hotmail.com, isaiahcho@hotmail.com



[새벽강단 27 새창조교회 새벽예배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보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 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하러면 줄을 잘 서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에 기대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권세나 명예 힘과 부는 무너지는 담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지붕위의 풀과 같아서 속히 말라버리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정말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지 판단하고 알 수 있습니다.

다. 거룩을 빙자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큰 교회들에서 가장 신실하게 신앙한다는 분들이 싸웁니다. 거룩을 빙자하고 신성을 포장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낮아지는데 은혜가 있지 않아지는 것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호세아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를 지적하면서 왜 너희는 하나님보다 이방을 더 의지하느냐(1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테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세월의 교훈을 받은 우리들은 더욱 낮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메시지가 마지막에 반드시

새창조교회 정병재 목사

“영적무지와 영적교만의 삶 벗어나야”

새창조교회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일에 담임목사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새창조교회는 정병재 목사가 담임하게 되었으며, 최학량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정병재 담임목사는 “하나님께 빛진 자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빛진 자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헌신을 다짐했다. 정목사는 지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낮은 자의 삶을 추구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지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 하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워진 현실을 모면하려고 애쓰거나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너질 담과 같은 힘없고 갈대 같은 세상의 권력에 기대어 보려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권능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오늘 아침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영적 무지와, 더 나아가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영적 교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낮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축복이 임할 것이며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박삼미 기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교만해 있습니다. 본문의 7-8절을 보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모은 재물에 대하여 의롭게 여기면서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합니



정병재 목사



선교사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선교는 내가 돌아갈 곳'

마켓 서플라이 '그랜드 캘리' 사장 폴 강 선교사



그랜드 캘리 폴강 사장

선교사, 비즈니스맨, 사장... 마켓 서플라이 업체 '그랜드 캘리' 폴 강 사장의 호칭들이다.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로, 비즈니스 시작 전에는 일본 선교사로, 현재는 작은 회사의 사장으로 동분서주하는 그의 삶이다.

회사에서도 사장보다는 선교사로 불리는 그는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교회음악을 전공하고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서원했던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부인하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방문한 일본에서 그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됐다. 친분이 있었던 목사님의 권유로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로 준비하다가 시작된 사역은 아니지만, 가서 보니 일본은 자신의 전공인 음악으로의 선교적 접근이 용이했다.

“복음전파는 어렵지만 흑인영가로 유래된 가스펠송을 일본인들이 많이 좋아하더군요. 콘서트를 기획해서 일반인들도 초청하고 간단한 메시지도 곁들여서 사역을 하다 보니 열매도 생기기 시작했죠. ‘아...내가 필요한 곳이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인 음악사역을 시작하려니 목사안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주위의 권유로 5년간의 일본사역을 잠시 미루고 목사안수를 위해 미국으로 왔다. 이제 미국 온지 3년여. 받으려던 목사안수는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폴 강 사장에게는 비즈니스맨이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우연히 교회 쪽으로 어카운트를 연결하게 됐는데, 회사에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주변의 소개와 도움으로 작게나마 자체적인 회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 역시 무슨 계획이나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니구요. 때에 따라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한 마켓 서플라이

회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격조건 때문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제가 비즈니스 하러 미국 온 것이 아닌데 이렇게 가도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고 멈출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비즈니스를 내려놓겠다고 기도했어요. 대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주님 보시에게 선한 일,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마켓 서플라이는 대부분 일회용 접시나 그릇, 컵, 나무젓가락 등 요식관련 제품들이다. 식당이나 마켓, 교회 등에 좋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대명사인 일회용품들을 공급하는 이 업체의 비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살리는 회사’이다. 현재 회사로써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연구 중이다.

또한 이 비즈니스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작은교회의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 그는, 새벽예배 반주를 위해서지만 매일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다.

비즈니스가 바빠지면서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매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묻고 기도하는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욕심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욕심 내 안의 욕심을 비워내는 훈련을 하는 중이죠. 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하다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고 전 저의 자리로 돌아가려구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일분이 있거든요. 모든 과정이 선교를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랜드 캘리(Grand Caly, Market Supply)

전화: 714) 447-9799  
사무실: 4040 N. Palm St., #401, Fullerton, CA92835  
(박삼미 기자)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수수료 이혼 \$250부터
•속성 결혼신고 \$130 •가족초청\$190
•영주권 수속 \$600 •이름변경\$290
•시민권 수속 \$100 •공증 \$10
가고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총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Certificate Program for Immigrant Church Family Ministry

이민 교회를 위한 가정사역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소중하고, 시급한 가정 목회 현장, 그 배움의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Table with 2 columns: Course Title-과목, Professor-교수. Includes courses like 'Biblical Foundation of Family Ministry' and 'Pre-Marital Counseling'.

- Intensive Course : 3주간 수업, 2월 7일-26일 / 월요일-금요일: 오후7:00-10:00, 토요일: 오전 8:00-오후6:00
장 소 : 659 S. Westmoreland Av. #A, L.A., CA 9005 (미주성문 교회당, 월서길, 이태리양복점 2층)
등록 마감 : 2011년 2월 4일(금) 입학원서는 본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입학자격 교역자 혹은 평신도(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서류 심사

특기사항 ① 1, 2학기를 수강할 경우 본교 Certificate를 취득하여, 교회의 가정 사역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② 본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 대학교 M.A. & M.Miss. 과정에 편입 시 학점을 인정 받습니다.

③ 1과목 3학점으로, 과목당 \$500,00(총 3과목 등록금, \$1,500,00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입학금, \$50,00

④ 입학금 및 등록금은 Check 혹은 은행구좌로 납입합니다. 한미은행 500-1341100 Vine University Check, Vine University P.O.Box 7263 Torrance, CA 90504



바인 선교 대학교

14253 Erwin St, Van Nuys CA 91401 Tel. (310) 991-4733 / (310) 212-7481
flisp2@hotmail.com / cmpark@vine.ac / www.vine.ac
Family Ministry 원장, Christina Kang, Ph.D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고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1월 31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 차세대로 다니놓는 크로스로드교회

## 전길성 목사

### “신앙의 차세대를 위한 1.5세 교회”

네 카운티가 인접하고 있는 치노힐스에 가면 십자가를 드높인 ‘크로스로드교회’가 있다. 각 지역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뻗어 내듯 그 위업이 담당하다.

주께로 가는 크로스로드, 한국 문화에서 다인종 미국 문화로 가는 크로스로드, 20세기와 21세기로 가는 크로스로드, 1세에서 다음세대로 가는 크로스로드...,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과 비전을 이룸에 담고 있는 크로스로드교회는 1997년 1월에 창립했다. 현재 치노힐스 지역에는 2009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들어왔다.

교회를 담임하는 전길성 목사는 여호수아 1장 10~18절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 차세대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다. 특히 1.5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40세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게 됐다.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한 쉽 없는 몸부림,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과제, 차세대를 위한 초석 다지기 등이 그저 자신의 할 일이라고 믿는 전길성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은퇴를 준비했다. 부교역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할 사랑’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



크로스로드교회 담임 전길성 목사. ©박상미 기자

했기 때문이다.

전길성 목사는 “미국 주류사회에서 마음껏 영향을 미칠 젊은 목사가 세워지길 바란다”며 “1.5세로 시작하지만 2세 및 다양한 인종을 포함한 모두의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차세대들이 주류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하고 있다.

크로스로드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당도 이들 차세대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처음에는 칼스테이트 풀러튼대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크로스로드교회는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야만 했다. 그러다 교회의 한 형제가 치노힐스 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현재 위치를 발견한 것이다. 알아보니 땅

의 소유주는 미국 웨슬리언교단이었고, 부족하지만 청지기 캠페인을 통해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건축헌금을 교단에 기탁하여 성전건축을 허락 받았다. 더불어 크로스로드교회도 웨슬리언교단에 가입하게 됐다.

“전 미주성결교에서 안수를 받았고 유니온교회, 동양선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었습니다. 성결교회를 사랑하지만, 차세대의 비전을 품게 된 이상 미국 주류사회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컸어요. 마침 기회가 되었고 웨슬리언교단으로 들어갔습니다.”(전길성 목사)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보기도팀과도 만나게 됐다. 영적으로 혼탁한 그 지역, 바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길 10년간 기도해 온 팀이었다.

전길성 목사는 “백인인 중보기도팀장이 땅을 보고 돌아서는 저를 보자마자 누구냐고 물어왔어요. 교회를 건축하려는 목사라고 했더니 저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그 중보기도팀은 교회 건축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헌신으로 큰 도움과 힘을 주었다.

크로스로드교회는 성전건축 후에 일부 성도들이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다. 신앙의 차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단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유스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26명 정도를 개최지역인 덴버로 보낸 적이 있는데 가보니 우리 아이들만 유일한 동양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크죠. 주께서 주신 비전처럼 우리교회가 할 일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전길성 목사)

크로스로드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문의: (909) 627-0201

(박상미 기자)

## 생명의 전화 “미주 한인들, 고독과 외로움으로 힘들어”

지난해 한인들의 가장 큰 애환은 고독과 외로움이었다. 이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와 가족 간의 문제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의전화(대표 박다윗

박다윗 목사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삭막한 이국에서의 삶이 더 힘들어진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과 가정폭력, 경찰 총격 등의 소식이 더하고 있다”며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

### 2010년 상담 통계... '고독' 3341건 중 307건 가장 많아

목사는)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상담사례에 대한 통계를 지난 4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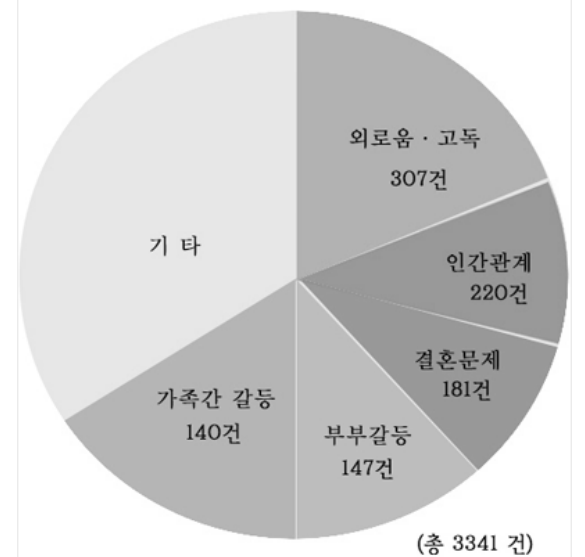
총 3341건의 전화 상담 중 침묵전화나 감사 및 격려 전화를 제외하고 고독 외로움의 문제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이 220건으로 2위, 결혼문제가 181건으로 3위, 부부갈등(147건)과 가족 간 갈등(140건)의 문제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도 하지만 반면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유사한 아픔을 겪고 있는 동포들이 주저 말고 상담을 요청하기 바란다”며 “생명의전화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상담전화: 213) 480-0691, 866) 365-0691  
사무실: 213) 383-0691  
(박상미 기자)

2010년 한해 전화상담 통계



## 샌버나디노카운티 빅토밸리 지역 건강대축제

### 23일 빅토빌예수 마음교회서

2011년 신년을 맞아 빅토밸리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한인교회 협의회(회장 김성일목사) 주최로 오는 1월 23일(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빅토빌예수 마음교회(15150 La Paz Drive, Victorville, CA 92395) 친교실에

서 실시된다. 그동안 빅토밸리 지역사회의 다민족 사역으로 지역발전의 위해 학교설립 및 감옥 선교, 문서출판선교(월간 예수마음, 빅토밸리 이야기) 및 인터넷 사역을 통한 지역복음화 선교사역을 주도하며 어린이와 시니어들을 위한 병원설립을 위해 의료 선교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빅토빌예수마음교회(담임 김성일 목사)가 주관하는 이번 무료건강검진은 세계의료선교회(



샌버나디노 카운티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김성일목사

회장 김인철 목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15 명의 전문의들을 통해 의료보험 가입유무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10여 가지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

며, 무료 양방, 한방검진과 무료 초음파검사, 무료독감 예방주사(선착순 50명 이하는 실비접종), 정밀 혈액검사 등이 담당 의사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게 된다.

지역 교육구를 통한 홍보와 빅토밸리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민족 목회자 기도 모임과 다민족교회 및 지역 한인사회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성일 목사는 “빅토밸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순수한 봉사자원의 행사로서 많은 관심과 뜻있는 독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760)220-3263

(지재일 기자)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고장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30%AD)

**John Ko**  
☎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 축하드립니다.

**NEW AWAKENING CONFERENCE 2011**

July 6 ~ July 9, 2011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Philadelphia, PA  
2011년 7월 6일~9일 펜실베이니아 컨벤션 센터에서  
[www.JAMANEWAWAKENING.com](http://www.JAMANEWAWAKENING.com)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역대하 7장 14절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벤츄라감리교회**

주일예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학생부 영어예배 매주 토 오후 5:30
주일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아동부 주일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5:30
학생회 주일예배 오전 11:50	한글학교: 매주 토 오전 11시

담임목사: 최 상 훈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USA  
Tel. 805-861-0094, 805-861-0172 vkmc@hanmail.net



# 파수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기독일보 되길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을 표방하는 기독일보가 창간 7주년을 맞아 17일 오후 5시 JJ그랜드호텔에서 80여 명의 한인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인규 광고국장(사회)이 진행한 이날 감사예배는 민종기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충현선교교회)가 설교했으며 정우성 목사(남가주광명교회)와 강신권 목사(비전153세계선교회 총재)가 축사하고, 김원기 목사(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와 이원상 목사(SEED 선교회 국제대표)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또한 박용덕 목사(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와 표세홍 목사(LA교역자협의회 회장)가 권면, 변영의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가 축도했다. 이 밖에도 송규식 목사(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부회장)가 대표기

## ◆ 창간 7주년 감사예배·· 민종기 목사 등 교계인사 80여명 격려 ◆



계 지도자들의 축복과 권면 속에 마무리됐다. 본지 편집고문으로서 설교를 맡은 민종기 목사는 ‘네 파수꾼들의 소리보다(사 52:7-10)’라는 제하에 기독일보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당부했다.

민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의 긍정적이고 적극

적이어야 한다. 아모스나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의 사명이 그러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 목사는 “기독일보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7절)”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기자들이 발로 뛰어 다니는 모습이 이와 같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기쁘고 좋은

어나기 바란다”며 “모든 것을 빨리 지나가고 생각하는 오늘날 좋은 글과 소식을 많이 남겨 생수와 같은 시원한 소식을 전해달라”고 축사했다.

이어 축사한 강신권 목사(비전153세계선교회 총재, 세계성경장로교회)는 “힘든 가운데서도 7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

가는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역을 하셨듯이, 기독일보도 교계와 성도들을 살리는 사역에 더욱 힘써달라”고 권면했다. 또한 LA교역자협의회 회장 표세홍 목사는 “언론선교사들로서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천만인이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확신으로 나아가라”며 “

정보의 홍수시대에 거짓정보를 구분하고 진실한 것을 받아들이는 기독일보 독자들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예배가 마친 후에는 지난 7년간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기독일보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사역보고’를 가졌으며, 만찬과 교제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독일보는 2004년 1월 23일 LA와 뉴욕에서 창간했으며 이어 2006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들란타, 워싱턴DC 등에 지사가 설립되면서 미주 전역의 기독일보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현재 기독일보는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면서 온·오프라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스마트폰용 모바일 버전(m.chdaily.com)도 개발해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있다.

(박상미 기자)



남가주 교협 수석부회장 변영의 목사가 축도했다.



예배 후 기념촬영을 하며 “기독일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찬양선교사 김행용 장로가 특송을 불렀다.

도를, 심진구 목사(남가주교협 부총무)가 성경봉독을, 정영수 목사(다메섹교회 원로)가 만찬을 위한 기도를 했다.

이날 예배는 ‘복음주의 수호’, ‘선교제일주의’, ‘교회연합과 일치’, ‘기독문화의 창달’이라는 사훈으로 7년간 힘써 온 기독일보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며, 한인교

적인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모스 선지자는 많은 죄를 지적했지만 결론은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며 “언론의 비판 기능도 필요하지만 결론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식이 더욱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때 교계를 이끄는 신분이 될 것”이라며 “파수꾼의 사명은 먼

소식 가운데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한다면서 “영원한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넘쳐나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역시 본지 편집고문인 정우성 목사(남가주광명교회)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기독일보와 임직원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

사드린다”며 “어릴 때 가장 먼저 쟁겨 읽게 되는 기독일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글을 써주는 기독일보에 감사하다”며 “예수님이 죽어



기독일보 창간 7주년 기념 케익 커팅식.



트리니티 미디어 피터 박 사장이 박용덕 목사에게 마이크를 전달했다.



정우성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컴퓨터 무료 견적, 수리후 3개월 안에 문제 생기면 무료 서비스!!**

**사이버텍 컴퓨터**  
www.computer-ctc.com

**PC & MAC on Sale! (Compare Price)**  
- 한/영 키보드 \$1 세일 (12월 31일 까지)  
- Ko/En Keyboard \$1 SALE! (sale ends Dec. 31)

컴퓨터 교육! 인터넷, 오피스, 사진반 | 월수금토 / 오전10시-12시

T. 714-590-9504 아리랑마켓 몰 한국일보 2층 (9562 Garden Grove Blvd #Q, Garden Grove, CA92844)

##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 I -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 합니다

▶ 모집기간: 2010년 12월1 - 2011년 1월31일까지 (이 기간 특별 우대하여 드립니다)

▶ 모집학과: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기독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학교주소: School Address,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윌셔와 램파트)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meduniv.org



# IHOP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회의의 입장

뉴욕지구교회협의회(회장 김 원기 목사)가 13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미동부이대위(회장 이 종명 목사) 주최 신사도운동과 IHOP에 대한 세미나를 앞두고 이단 사이버 대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말세에 이단의 발흥은 이미 성경에 예고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회는 이단의 책동으로부터 교회와 양들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회가 이단을 규정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또

한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안수가 교단에 의해 이루어 지듯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를 교협이 목사관에 대하여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일하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면 그것은 교단의 권위아래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때는 본회는 교단에 의뢰하여 이단의 시비를 가리도록 요청하는 것이 본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에도 마녀 사냥식의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는 이미 판정된 이단의 대책에 관한 세미나나 교육에는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회는 본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단을 존중하며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존중하는 바이며 이단의 규정은 모든 교단의 결정을 바탕으로 본회 이단대책 위원회 그리고 임, 실행위원들과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다루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바 아래 사실을 확실히 천명합니다. <윤주이 기자>

1. 본회는 한국의 주류 교단이 결정하지 않은 이단에 대한 사항을 자체 판단하지 않고 인정한다.
2. 주요 미국교단의 결정도 또한 존중한다.
3. 이단의 판단과 결정은 본회의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4. 이단 문제에 관한한 뉴욕교회협의회는 한국의 복음주의 및 보수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
5. 이외의 어떤 이단내지 이단성 시비 결정에도 자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사람의 '기적'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매일 밥상을 뒤집어 엎고, 어머니는 늘 혼자 머리를 아무렇게나 자르고 수건을 뒤집어쓰고 사시면서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 중이 되겠다고 습관처럼 말씀하셨다. 밤새 울다 잠든 통통 부은 눈으로 매일 학교에 가는 정경주 사모

간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다 소천하셨다.

알코올 중독자이던 아버지도 '너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남은 인생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정



14일 실로암교회 저녁 집회에서 간증을 전하고 있는 정경주 사모

남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한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정 사모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을 전하라"고 권고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열매는 바로 나타날 때도 있고 3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살아생전 그 열매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간증을 풀어놓았다.

<권나라 기자>

## 실로암교회 정경주 사모 초청 간증집회 성황리

의 어린 시절은 그랬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 제 2막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소망의 빛이 감도는 '밝음' 그 자체로 변화했다.

예수님을 믿고 변한 그녀의 삶을 보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나셨다.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동안 예수님을 몰라 어두움 가운데 허송세월을 보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56세의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 전도사로 26년

말 그 약속을 지키시며 남은 인생을 중보기도로 마감하셨다. 뿐만 아니다. 물고기 용항 귀신을 섬기던 집안의 큰 오빠도 정 사모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회자가 되었으며, 작은 오빠, 막내동생 할 것 없이 집안에 목사만 7명이 배출된 것도 정 사모의 기도와 중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그러나 정 사모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단 한가지이다. "결국 이 모든 것도 하

# IHOP (국제기도의 집)과 신사도 운동 관련 뉴욕성명서 발표

미주기독교총연합회(회장 장석진 목사), 미동부지역이단대책위원회(회장 이종명 목사), 미남부지역 이단대책위원회(사무총장 이태경 장로),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성희 목사), 국제기독교이단연구학회(상임이사 최은수 목사)가 공동으로 'IHOP과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뉴욕성명서-IHOP (국제기도의 집)과 신사도 운동 관련 뉴욕성명서'를 발표했다.

1월 13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필라델피아, 뉴저지 등 인근 지역에서도 목회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김재성 목사(필라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가 'IHOP과 자칭 선지자들의 문제점들', 정이철 목사(캔톤한인교회)가 '마이클 비를과 IHOP의 위험 요소 분석'이라는 제하에 발표했다. 세미나는 세 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이후 관계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2011 뉴욕성명서 (New York Statement) IHOP (국제기도의 집)과 신사도 운동 관련 뉴욕성명서

먼저, 2011년 1월 13일 뉴욕에서 개최된 기독교 이단 대책 세미나를 통해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공감하여 역사적인 뉴욕 성명이 발표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산 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2011년 2월 14일-20일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캔ساس 시티 IHOP (국제기도의 집) 집회에 직면하여, 국내외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한인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교육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가 거부

한 신사도 운동 자체와 신사도 개혁 운동의 주창자로서 세계 교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 피터 와그너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신사도 운동 관련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임이사 최은수 목사가 공동으로 'IHOP과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뉴욕성명서-IHOP (국제기도의 집)과 신사도 운동 관련 뉴욕성명서'를 발표했다.

둘째, 우리는 IHOP (국제기도의 집)과 신사도 운동이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과 왜곡, 성경계의 종결과 절대성을 넘어서는 직통계시와 예언, 비성경적이며 반역사적인 사도직과 선지자적 복원 등을 주장함으로써 정상적이고 건전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이번 기독교 이단 대책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자칭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근거하여 말세에 사도직과 선지자직을 복원코자 시도하는 것은 극단적인 은사주의 운동가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므로, 비성경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의 권위를 따라야 함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넷째, 우리는 국제기도의 집(IHOP)과 마이크 비를 등 자칭 선지자들이 극단적 은사운동과 신비주의에 토대를 두고, 가짜 부흥의 확산, 예언의 미혹, 종말 신앙의 왜곡,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신앙의 곡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기독교 중심교리의 실종, 젊은 세대를 집중 현혹하는 치명적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24시간 365일 기도집회라는 명분으로 현혹하는 모든 모임에 결코 참여하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및 해외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안고 있는 한반도에 조성된 전쟁 위기감을 이용하여 말세 예언을 한다는 자칭 선지자들의 영향력을 극

대화하려는 악의적인 의도 등을 간파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입각한 교회들은 결단코 이들을 포용하거나,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손기철 장로의 치유사역과 엘리야미니스트리와 같이 기도운동, 치유운동, 문화운동 등 각 영역에서 신사도 운동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선교방법으로 많은 문제를 표출하고 있는 선교단체 인터콥(대표 최바울) 김기동의 배후아귀신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사도 운동과도 깊숙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교회와 성도들은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목회자들 가운데 사도적 리더십이라는 미명하에 그 아래 여러 교회들을 두면서 네트워크화하여 '성경적인 교회회복', '신약원형 교회회복',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등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하는 '숨겨진' 신사도 운동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목적이 결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데 있지 않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불건전한 은사주의 운동을 마치 부흥운동인양 미화하려는 시도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주시할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가들과 접촉했거나 그들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 신사도 운동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상적이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은혜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2011년 1월 13일  
미주동부지역이단대책위원회  
미주남부지역(달라스)  
이단대책위원회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국제기독교이단연구학회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션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경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3:00 중고등부예배 오후 3:00  
 주일학교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1130 N. East St, Anaheim, CA 92805  
 T. (714) 991-9881 /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 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영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고 주일학교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리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3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http://www.visioncc.org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문화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선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진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오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0:4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40 주일학교 오전 10:45, 오후 12:4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9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금요찬양집회: 매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금요일  
 영어예배 오전 10:15 오전 5:15 30분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 오후 12:30 주일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rcoc.com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십일) 수요예배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미주 최초 2세와 1세의 교회 통합

## 인터뷰

### 레이크교회 · 중앙교회 통합 : 강민수 · 정양배 목사

한인교회의 미래는 어디까지와 있는가? 70-80년대 이민 초기에는 1세 위주의 교회에 CM, YM 등 2세 사역이 덧붙여 가던 시대였고 90-2000년대에는 성장한 2세들이 미국 사회로 진출하면서 그들을 위한 EM 사역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 중에 다수의 EM 교회들이 KM 모교회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으며 분립 때로는 소멸되기까지 했다. 1세와의 불화로 인해 한인교회를 아예 떠나 버리는 2세들까지 생기면서 한 지붕 두 가족, 두 지붕 한 가족 모델 등 모델 논쟁이 한참동안이나 계속됐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몇몇 성공적인 2세 독립교회 사례들이 생겨났고 이 교회들은 범아시아교회 혹은 다민족교회로 정체성에 변화를 겪기도 했다.

최근 레이크교회와 시카고중앙교회가 통합했다. 두 교회는 오는 3월 첫주에 정식으로 하나된 교회로서 통합감사예배를 드린다. 레이크교회는 이종민 목사가 시무하던 레이크한인장로교회에서 2004년 분리된 2세 교회로 시카고의 가장 대표적인 2세 교회 중 하나다. 1960년대에 개척돼 올해로 44년이 된 중앙교회는 시카고를 대표하는 중견급 교회로 650석의 본당, 대형 친교실, 각종 회의실 및 교실을 갖춘 현재의 노스브룩 성전을 구입했지만 각종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큰 위기에 처했다. 이후 2009년 6월 정양배 목사가 시무하던 할렐루야교회와 통합하면서 중앙교회는 안정을 찾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10년 11월 레이크교회와 통합을 하게 됐다.

통합 후 두 교회는 레이크부연약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원래 레이크교회 내에 있던 영어권 회중인 노스브룩의 한인 2세 캠퍼스, 버논힐스의 다민족 캠퍼스와 중앙교회의 1세 회중이 하나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강민수 목사가 세 캠퍼스를 이끄는 리드 목사가 되며 버논힐스의 다민족 캠퍼스는 저스틴 놀스 목사가 맡고, 정양배 목사는 레이크부연약교회의 1세 회중인 한국어 캠퍼스를 맡게 된다. 즉, 레이크부연약교회는 노스브룩과 버논힐스에 두 개의 예배 장소를 가지며 노스브룩에 한인 2세, 한인 1세 캠퍼스, 버논힐스에 다민족 캠퍼스를 가진 형태가 되는 것이다. 레이크교회는 레이크부연장로교회 내에 있을 때 PCUSA에 속한 교회였으나 7

년 전 독립한 이후 독립교회로 존재하다 지난해 6월 북부연약교단에 가입했다. 중앙교회 역시 북부연약교단 소속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강민수, 정양배 목사로부터 들어 본다.

#### ◆ 이번 통합에 관해 먼저 두 목사님의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정양배 목사:**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교회는 44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한때는 시카고에서 큰 영적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고, 6.7 에이커의 대지 위에 현재의 성전과 건물(구 노스브룩 초등학교) 등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와 2세가 하나되는 일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가 적은 이유는 1세 교회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으면 1세와 2세 교회가 하나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통합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1세와 2세가 하나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동시에 요즘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한인교계에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세 교회가 그동안 한인 2세들만, 혹은 다민족 사역에만 주력해 왔는데 이번 일은 한인 2세 교회가 한인 1세도 하나의 선교지로 보고 접근하게 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강민수 목사:** 저는 그동안 1세 목회에 대한 소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인교회들로부터 담임 청빙도 있었지만 이런 요청에 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들의 갈등을 접하며 많은 한인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것을 보며 1세들의 아픔에 관해 생각하게 됐고 1세 목회에 대한 영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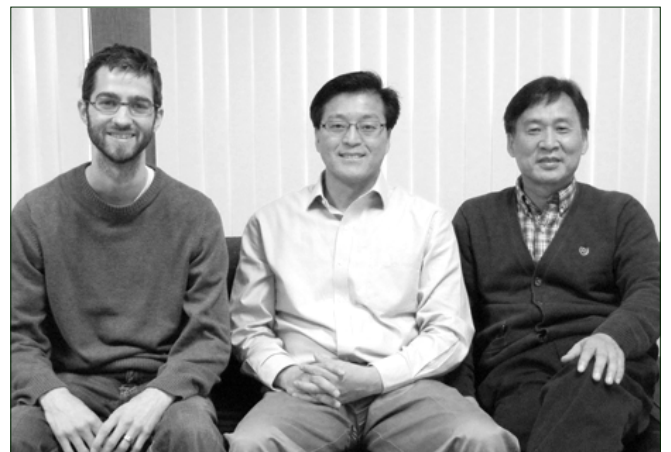
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제게 주시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최근 C국에 선교를 갔을 때 저는 한국어로 설교를 했는데 2세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제 한국어 설교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한인 1세 캠퍼스를 설립해도 좋겠다”라는 말을 해 왔습니다. 2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제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 중 우연처럼 정양배 목사님과 교회 통합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됐고 저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1세 목회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센 반대에

#### 여려는 없습니까?

**정 목사:** 중앙교회와 정식으로 통합 절차를 밟아 가면서 모든 과정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1세들이 2세들에게 신앙 유산을 전수하길 바라지만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세들에게 교회의 리더십을 줘야 한다고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극복했습니다.

#### ◆ 1세 예배는 강 목사님과 정 목사님이 번갈아 설교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강 목사님은 이미 중견급 목회자이지만 1세 목회



레이크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 저스틴 놀스 목사, 강민수 목사, 정양배 목사(좌측부터)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1세 교회에서 나와서 다민족 목회를 하는데 다시 1세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리더들의 반대를 대하며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모아,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리더들의 마음이 변화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인데 혹 누군가 이 일로 인해 시험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기에 이 일은 꼭 해야 한다”는 증거까지 얻었습니다. 저는 한인 2세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한인인 아닌 동양인 2세들과 백인들에게도 한인 1세를 품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아무래도 1세 교회와 2세 교회의 통합인 만큼 많은 1세, 2세 교회가 겪은 주도권 갈등이 있을

#### 경험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 목사:** 사실 저는 1세 목회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고 2때 이민을 와서 한국말도 다 잘 이해하지만 지금껏 24년간 영어목회만 하고 영어로 설교했으니 한국어 설교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또 문화적으로 볼 때 2세 목회와는 전혀 다른 목회 환경이기에 쉽지 않은 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1세 목회에 경험을 가진 정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하기에 순조로우리라 예상합니다.

#### ◆ 중앙교회가 2세 교회에 모든 것을 내려 놓는 것은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

#### 정이었나요?

**정 목사:** 작년 8월 15일 이번 통합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에서 이 안건을 교인 투표에 부쳤을 때 90%가 찬성했습니다. 우리는 재정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90%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중앙교회를 지키고 사랑해 오신 신앙이 깊은 분들이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란 점입니다. 우리는 중앙교회가 레이크교회와 함께 해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강 목사:** 건물 유지가 힘들어서 통합한다고 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한 미국인 대형교회가 이 건물을 사고자 타진해 왔고, 유대인들도 이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렌트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교회는 이 건물을 팔거나 정리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1세와 2세간 통합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세 교회가 1세 교회를 통합해 가는 이 모델이 아직은 생소하지만 한인 이민자 수가 줄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강 목사:** 저는 모든 교회가 이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모델 중 하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1세가 2세를 돌보고 키워주는 시대였지만 이제 1세와 2세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고 있기도 하고 독립하기도 합니다. 세번째 단계로 2세가 1세를 섬기고 이끄는 모델이 탄생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은 합니다. 혹 2세들이 1세와 대등한 관계를 가진 교회라면 저희와 같은 이런 모델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인니

다. 그러나 여전히 1세의 보살핌을 받는 2세 교회라면 이런 모델을 도입하려 해선 안될 것입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이번 통합이 레이크부연약교회의 전도나 선교에 주는 영향도 있겠지요?

**강 목사:** 저희 교회는 “Transformation”, 즉 삶의 변화를 중요한 가치로 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도 변해가는 것이 비전이며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니카라과나 C국 등 다양한 곳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시카고에서도 세 캠퍼스를 통해 동양인 2세, 외국인 2세, 한인 1세까지 선교하게 됐습니다. 이번 통합이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에 순종하는 일임과 동시에 각종 교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카고 한인사회에 치유와 화합의 귀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 한인을 10만으로 잡는다고 할 때, 교회 수가 2백개이고 이 교회들의 평균 교인은 100명이 못 됩니다. 즉, 전체 교인이 2만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불신자가 8만명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2세나 다민족 뿐 아니라 1세들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 ◆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 캠퍼스가 어떻게 한 교회로서 기능하게 됩니까?

**강 목사:** 구체적으로는 세 캠퍼스가 절기 때 연합예배를 영어나 한국어 완벽한 이중 언어로 드립니다. 지난 추수감사절과 성탄 이브에 이런 예배를 드렸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 캠퍼스를 한 교회로 유지시키는 가장 큰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자체적으로 새벽이슬(The Dew)라는 묵상집을 발행합니다. 주일날 설교한 본문을 이 책을 통해 5개로 나누어 5일 동안 성도들이 묵상합니다. 또 소그룹에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일주일동안 같은 말씀을 3번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명의 목회자가 모두 같은 본문을 갖고 일관된 흐름에 따라 설교하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한 교회 한 성도로서 한 비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기자)

# 자 동 차! 토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 임상철 목사 첫번째 토네이션 자동차 -

후원자 : 임상철 목사(남가주리디머교회 부교역자) 수혜자 : 문형미 전도사(나성순복음교회)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주관 : LA교역자협의회, 기독교일보 후원 : NARA AUTO 바디, LA 정비 연락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213-718-1512





## 한기총 관계자들 2014년 WEA 총회에 기대 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주요 회원들이 오는 2014년 세계복음연맹(WEA) 서울 총회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는 한기총 실행위원과 부회장, 부서기 등 주요 회원 174명에게 WEA 총회를 비롯해 한기총 정관개정, 대표회장 임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전화 및 서면으로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 93명(53.5%)이 “WEA 총회준비위원회를 확대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 등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53명(30.4%)은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 준비위원회를 통해 2012년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했고 21명(12.1%)은 “

38.5%)이 가장 많았다. 또한 대표회장 선거전에서 후보자 격 여부를 놓고 사회 법정에서 심사에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응답자 대부분(162명, 93.1%)

한기총 회원들은 이념적 성향에 있어 ‘극보수’일 것이라는 외부 시각과는 달리 사회 참여에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신학에 서 있지만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응답(81명·46.6%)이 ‘보수신학과 보수적 행동 원칙에 서 있다’는 응답(75명·43.1%)보다 앞섰다.

‘신학과 행동에 있어 중도다’(10명·5.8%) ‘진보신학을 추구하지만 행동에 있어 보수다’는 응답(7명, 4.0%)이 각각 뒤를 이었다.

〈김진영 기자〉

### 국민일보 설문조사서 드러나

한기총만으로도 총회를 잘 치를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회원들은 다음 회기에 한기총 정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146명, 83.9%)고 여겼고, 대표회장 임기에 대해선 ‘1년 연임 가능’을 명기한 기존 정관을 지지하는 이들(67명,

이 이에 반대했다. 2013년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에 대해선 ‘한국교회가 WCC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정체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대담(72명, 41.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WCC 총회 유치는 매우 잘못된 것’(51명, 29.3%)이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 한국인

90% ‘인생 의미있다’  
83% ‘행복하다’

한국인 중 90%는 인생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며 83%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17일 ‘한국인의 철학’을 주제로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1월 5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3명(남성 749명, 여성 754명)을 개별 면접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항목은 인생관, 가족관, 윤리관, 종교관, 국가관, 사회관 등 가치관 전반을 포괄했다.

조사 결과 90%의 응답자가 ‘인생이 의미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28%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응답했고 62%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말해 대체적으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4%가 ‘자주’라고 말하고 47%가 ‘가끔’이라고 답해 51%가 인생의 무의미함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행복하다’는 답변이 14%, ‘어느 정도 행복하다’ 69%로 총 83%에 달했

다. 행복하다는 답변은 1981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비해 1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53%, ‘선악을 동시에 갖췄다’ 32%로 나타났다.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 그 죄를 받는다’는 데 동의하는 답은 85%로 집계됐다. 운명은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답이 62%, 타고나는 것이라는 24%였고 반반이라는 답은 12%였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한다(7%), 가끔 생각한다(49%),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30%),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13%)로 나타났다.

결혼관에 대해서는 혼전 동거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54%, 찬성이 40%였으며 20대들은 찬성이 54%로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30%인 반면, 68%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44%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25%는 개신교, 22%는 불교, 8%는 천주교 신자로 집계됐다.

〈이미경 기자〉

## “21세기 교회와 사회, 여전히 칼빈이 필요하다”

### 제11차 아시아칼빈 학회 한국서 개막

제11차 아시아칼빈학회 학술대회가 17일 오후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교(총장 정일웅)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칼빈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막을 올렸다.

‘21세기를 위한 칼빈’(Calvin for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9일까지 열리고, 이 기간 동안 각국의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한 칼빈 관련 논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이날 개회예배에서 아시아칼빈학회 회장인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가 인사말을 전하는 것으로 그 첫 막을 올렸다. 이 박사는 “아시아칼빈학회는 지난 1985년 처음 시작됐다. 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일본의 저명한 칼빈학자인 와타나베 박사의 주도로 일본과 한국, 대만의 학자들이 모였다”며 “지금까지 학회를 통해 아시아의 칼빈 연구가 상당히 발전됐다. 물론 구미의 학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격차를 많이 줄였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제11차 아시아칼빈학회에 참석한 각 나라 칼빈학자들. 왼쪽부터 이수영 목사, 와타나베 박사(일본), 이종운 목사, 정성구 박사, 칼라아펠루 교수, 헤르만 셸더하위스 교수(네덜란드). ©김진영 기자

개회예배 설교는 이종운 목사(서울교회 원로)가 전했다. 이 박사는 이수영 목사와 함께 국내 정통 칼빈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박사는 “칼빈이 남긴 기독교강요는 다름 아닌 성경 강해서”라며 “종교개혁가였던 그는 운명으로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인 ‘오직 성경으로만’을 외쳤던 사람이다. 기독교강요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혹적인 음악이나 감동적인 간증과 호소가 성경과 함께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박사는 “칼빈은 개혁 신학을 주장하면서 폭력과 도박, 음탕한 춤과 간음, 강간으로 가득한 제네바를 개혁해 나갔다. 이 때 그의 무기는 오직 성경 뿐이었다”며 “그 결과 제네바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전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21세기를 맞은 교회와 사회엔 여전히 칼빈이 필요하다. 아시아 칼빈학회가 칼빈처럼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감당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축사한 총신대 총장 정일웅 박사는 “21세기는 포스트모던의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라며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신학의 정체성이 어느 때보다 분명해야 한다. 아시아칼빈학회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NCCK 김영주 총무 역시 “한국교회는 칼빈의 정신에 따라 새롭게 개혁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칼빈학회를 통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금 발견하고,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깊은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칼빈학회 회장 안인섭 교수(총신대)는 “5백년 전 사람인 칼빈의 신학과 가르침이 이 시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자리”라며 “칼빈은 성경에 근거해 한 민족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역했다. 그를 연구하는 우리들은 그의 신학을 통해 더욱 이 시대 의미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칼빈학회 회장 네덜란드의 헤르만 셸더하위스 교수가 주 강연자로 참석했고, 일본과 대만, 인도 등에서 칼빈학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 L.A. AUTO 정비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24hr **213.247.6657**

**OPEN 7DAYS A WEEK**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조주호 총장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침 해가 동녘에 떠오르면 어두웠던 세상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환한 새날을 열어 가듯이 세상을 밝히는 큰 사명을 7개성상이란 긴 세월과 함께 언론의 사명과 큰 역할을 다하신 것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을 들고 가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사회의 양심이

교회와 신앙인의 양심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신앙인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 주고 오늘을 기독교인들을 향한 중대한 교훈인것 같습니다. 기독교일보가 이루어 놓은 언론의 역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난과 시련의 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어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중보역할을 하면서 이민사를 새롭게

### 기독교일보 7주년 기념 축하

은 복음 사역을 위한 중심적인 큰 사명을 감당하고 수많은 교회와 선교 기관은 물론 이민 목회자와 신앙인들 서로에게 협력과 단합의 기회를 열어 주고 연합적인 복음사역을 하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교계정보를 전달하는 언론 사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진리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귀가 가리워서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구어 가는 기독교일보에 감사한 마음을 다시 드립니다. 더 큰 미래와 더 귀한 보람의 날을 기대하면서 더 밝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책을 다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기독교보가 세계에 흠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로 모아 신앙의 용기를 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성숙한 언론으로써 성장과 번영의 새날이 오기를 기원 드리면서 축하를 대신합니다.

###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 나가는 신문



배현수 목사  
위성선지역교회협의회 회장

기독교일보 창립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엔 어둠이 많지만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나가는 기독교일보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동시에 축하를 드립니다. 세상이 흥흥할 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듣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 그리고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이룬 업적을 볼 때 대단하지만 이제 7년을 한 묶음으로 이미 지나간 한 회기도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7년은 더욱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새 힘이 솟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인들만의 소식이 아니라 이제

전하며, 진리의 소식을 전함으로 알찬 신문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는 발전을 이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일보가 전하는 소식으로 이 세상이 더욱 밝아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서 가며, 2세들에게도 참된 소망을 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충실한 신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기독교일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귀 신문을 통하여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립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음 7년이 정말 기대됩니다.



### 기독교언론의 중심에서 바르고 기쁜 소식 전하길



김원기 목사  
뉴욕교회협의회 회장

을 통해 바른 말씀이 전달되고 교계의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 바른 소식들이 전달되는 것이 기독교일보의 사명과 책임인줄 믿습니다. 7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전진하고 기독교일보가 기독교언론의 중심에서 크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욕과 미주, 세계전체 기독교언론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쁜 소식 등을 미주교계에 널리 퍼지게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데 언론



정인수 목사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전국총회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교보는 인터넷 뉴스로 새로운 매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신문

의 속보성과 현장성을 잘 살리는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를 접하면서 인터넷 시대의 강력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자들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취재 모습은 타 미디어

고도 창의력있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좀 더 시사성과 깊이가 있는 소식도 전하면 좋겠다는 주문도 해 봅니다. 어떤 뉴스들은 좀 더 심층적으로 취재해야 그 깊이를 꿰뚫을 수 있는 주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보는 아틀란타와 동남부 지역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초심으로 늘 돌아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들을 충실히 취재하며 현장의 감각으로 보도하고 오늘날 돌아가는 세계와 사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안목들도 더욱 더 갖추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기독교일보 7주년 창간에 부치는 글

독일보를 통해 적지않는 뉴스의 감동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모든 지역의 뉴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독교일보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기독교일보를 통해서 교계 소식과 전국 미주 교회의 뉴

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현 장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지런함이 또 기독교일보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세상의 화두는 온통 변화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뉴스로 더욱 더 속보성을 살려 변화하는 세상을 신속하



이원상 목사  
SEED선교회 국제대표,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기독교일보 7주년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미주 기독교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은 기

높은 산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고층에 오르기는 지금까지 해 왔던 7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과 신뢰성과 책임성과 충실성이 함께 연합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고차원의 기독교일보가 되어서 미주 내에 많은 매개체가 있지만 기독교일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포사회가 인정하고 미국 사회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기독교일보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기독교일보

7주년을 기념해 이사가 40장 9점의 말씀으로 몇 가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독교보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매개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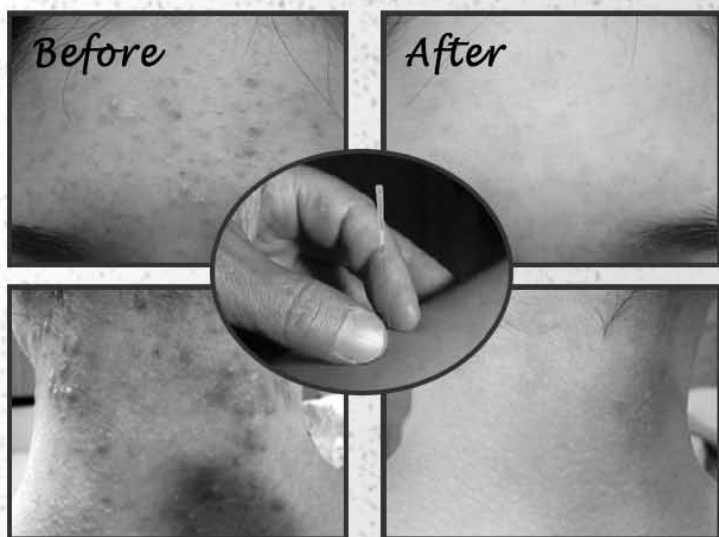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기독교보를 통해서 교포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는 기독교일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 경산한 의과 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 고태형 칼럼



고태형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조선 말 임금인신 고종께서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을 불러 격구(擊球)를 시켰습니다. 격구에는 말을 타고 하는 기마격구와 궁중이나 넓은 마당에서 하는 보행격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테니스도 조선 말엽에는 다르게 부를 단어가 없어 격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종 임금께서 대신들과 함께 선교사들의 격구(테니스 경기)를 구경하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 대신들이 '저렇게 힘든 일은 밑에 있는 종놈들에게 시키지~'하며 혀를 끌끌 찼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에게 공을 때리는 운동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매력으로 가끔 테니스를 치곤했는데 여러가지로 미숙하지만 특히나 잘 안 되는 부분이 볼 컨트롤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친구 목사에게 테니스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는 모습을 보더니 저에

서 때리고~ 지금은 조금씩 몸에 배면서 그래도 제법 그 방법대로 공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혹은 지쳐서 힘이 부족하면 자동적으로 옛날 습관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 처럼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들으면 새로운 것이 좋은 줄 알아도 옛 습관에 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이 몸에

니스 배우는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다가 잘되지 않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데 쉽게 잘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운동을 바르게 배우는 것처럼 바르게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지도를 받고 교정 받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조금씩 몸에 익숙하게 되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 종놈들이 하는 일

가 가장 기본이 되는 라켓을 잡는 법과 공을 때리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니 신기하게 잘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의 맛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방법대로 하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 습관이 몸에 배어서 제대로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친구가 그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서 위로 때리고' 시간을 늦추어서 몸에 공을 붙여

배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실천해 보면 습관대로 하던 버릇때문에 하루 종일 졸리고 머리 아프고 해서 얼마간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한 가지 습관을 만들려면 21일간 계속 해야 우리 몸에 습관으로 정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도 오래 걸립니다.

필자의 하는 일은 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어서 테

'종놈들에게 시켜 마땅한 일'이라 치부하며 구경만 하면 절대로 그 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남들이 하는 것만 보아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시간 들이며 애쓰며 수고하는지? 신앙생활도 시간이 걸리지만 자신의 몸에 익숙할 때까지 정성을 드리면 귀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맛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기쁨이 넘치며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맛있는 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 남성수 칼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지난 한 주간은 풀러선교대학원의 목회학 박사과정에 개설된 기독교선교운동사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학자인 폴 피어슨 박사가 강조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논지였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전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셨으며,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제자도를 가르치신 이유 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피어슨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역사 이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교회가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사명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받은 감동과 도전은 그 어떤 때보다 컸습니다.

동시에 제게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열방에 선포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본질과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 그 시대에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반딧불처럼 반짝 빛났다 사라지는 그런 교회கள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져도 그 복음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던 그런 교회들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 열방을 위한 선교를 위해,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들의 온 열정과 물질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잠시 복음전파의 열정에 불타오르다가 사그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유행과 세파에 부화뇌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원래적인 본질에 충실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드려야 할

시간적인 헌신은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물질적인 헌신을 원하시는가? 내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방향을 세워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과연 나를 왜 한인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주간동안 생각해야 할 질문들



### 김세환 칼럼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공부(工夫)라는 말을 중국어로 읽으면 재미있게도 '쿵푸'입니다. 중국 고유의 무술인 쿵푸와 발음이 같습니다. 마치, '쿵푸'를 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고 심혈(心血)을 기울여 연마하는 것이 '공부'라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보물'이 오늘의 '고물'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재교육과 연장 교육이 없으면 빨리 진화해가는 속력에 놀려 낙오되기 십상입니다. 학문과 직업도 많이 세분화되고, 상호연관적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부 가 있지 않으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었다"는

서 우리나라는 진술함은 예전과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설교 중에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하셨는데, 35년 전에 하셨던 이야기의 내용과 전개 순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유년의 설교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경이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

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인들의 맥아리 없는 표정 속에서 그들도 이미 '사자굴' 속에 갇혀 배고파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배우기를 게을리 했다가는 '매력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본질을 드러내야 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재해석되어야 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불경스럽게 인식되던 것들 중에서 이제는 교회의 중심활동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지식한 왜곡주의자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팔각발이가 되기 보다는 그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2011년에는 변화를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공부하는 교회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은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NO하는 인간"입니다. 공부를 그친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미 노인입니다. 예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어렸을 때 아주 좋아하던 아무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철순을 바로 눈앞에 둔 순백(純白)의 머리털을 가지신 목사님이 되셨지만, 구수한 말투에

해보니, 그 목사님이 예전의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 '다니엘의 사자굴'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사자굴 이야기를 100번 이상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성도님은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자굴 속에서 맹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불평할만큼 목사님의 주 무기는 다니엘의 사자굴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은퇴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떠나시

##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 “기독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특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한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시를 면제함

####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

블랙앵거스 프라이드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시카고의사와 보철 전문의사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 턱의 턱관절    \* 턱의 턱관절  
수면 임플란트 (V Injection)    도발 없이 씹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전문    임플란트 전문  
발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보철 시카고의 전문    보철 시카고의 전문    보철 시카고의 전문

●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른가면 특별할인**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식 • 보철치료 • 신경치료 • 구강외과    보철환영: PPO, HMOA  
치주치료 • TMJ (턱관절장애, 소음증)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보톡스 (주름, 근육에 의한 사각턱) • 치아교정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644



###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애주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323-378-6213 - Toll Free: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약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점,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 LA캐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전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http://www.lacatering.com)

1-800-530-5660 / 1-800-711-0776

- 카레라이스 \$1.00 (1인당)
- 짜장소스 \$1.00 (1인당)
- 유채 콩나물국 \$1.00 (1인당)
- 김자 미역국 \$1.00 (1인당)
- 아재 비빔밥 \$1.20 (1인당)
- 고기 비빔밥 \$1.80 (1인당)
- 육개장 \$1.5 (1인당)

##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건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장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상점 및 그라자용    마켓용    창고용 Pallet Rack  
Bottless Shelving    Gondolas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스트, 6가 7가사이)

블라인드 커튼 전문 업체    MR 박은 찾아주세요!



##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http://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스탠튼대학교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 철공 콘크리트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CAP CONSTRUCTION  
**213-327-9929**    **213-327-9929**

##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820-3504**

## 결혼꽃 전문 기니꽃집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PH** Puente Hills Hyundai “기록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HYUNDAI **HAS IT**”

# 2011년 신년특별 세일



2010년 지난 한 해 동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주 최대 단일 현대 딜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심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2011년 토끼띠 한해도 더욱 고객에 다가갈 수 있도록 판매,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임직원 일동



2011 완전 새로워진  
쏘나타



**\$199**

(PLUS TAX, 3YR LEASE, TDO \$2,399, 12K MILE/YR, VIN # 139449)

2010 중소형 세단  
엘란트라



**\$14,034**

(INCLUDE DEALER D/C, HMA REBATE 1,500, HMF BONUS CASH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 1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10 HYUNDAI ELANTRA  
RED STK P975481 \$13,999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21,699



2007 HYUNDAI AZERA  
BLACK STK P185167 \$15,999



2009 HYUNDAI GENESIS  
BLUE STK P029231 \$28,990



2010 HYUNDAI SONATA  
TAN STK P591753 \$13,999

###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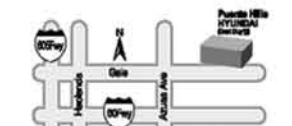
- ▶ 2009 ACURA TSX GRAY #196587A
- ▶ 2007 BMW 328XI BLACK #PP31167
- ▶ 2006 BUIC LUCERNE RED #121938A
- ▶ 2007 HUMMER H3 YELLOW #P126552
- ▶ 2008 HYUNDAI AZERA BLACK #P332058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9231
- ▶ 2009 HYUNDAI GENESIS GRAY #P046436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2767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2532
-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P270753
- ▶ 2010 HYUNDAI SANTA FE RED #P343949
- ▶ 2010 HYUNDAI SONATA COCOA #P601361
- ▶ 2010 HYUNDAI SONATA WHITE #P598307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P057661
- ▶ 2009 KIA SEDONA GRAY #P296190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터문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한국어 상담  
제니 김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ive you \$1,000. It's that simple.